

## 하늘이 내린 기회



김 천 사

세계 역사의 조류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농경사회가 종언을 고하고 산업사회로 변화하였듯이 이제 고도의 물질문명을 자랑하던 산업사회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치관과 문화와 일상 생활양식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IMF의 영향으로 사회 곳곳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맞

---

약력 : • 70~73 (주)럭키 전산부 • 73~76 SPERRY KOREA(현 UNISYS KOREA) • 76~95 두산 그룹 • 95~97 두산정보통신(주) 대표이사 • 97~98 (주)대구종합정보센터 대표이사

이하기 위하여 어차피 사회구조를 조정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필요로 했던 시점이니 만큼, 어쩌면 IMF 사태가 오히려 도움이 되어 잠깐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과 문화를 재창조하여 세계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하는 시점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200년 이상이나 뒤졌다. 200여 년이나 뒤떨어진 격차를 불과 40년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좁혀 보려고 우리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세계인들은 입을 모아 한강의 기적이 라고 칭찬도 하였고, 일상생활 수준도 오늘날 만큼 나아졌다. 그러나 외국 문화의 무차별한 유입과, 오직 잘 살아 보자고 생존을 위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가치관은 혼돈되었고, ‘대충대충’ ‘빨리빨리’ 일했던 관계로 모든 분야의 기초는 부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사회가 그래도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천우신조인지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왔다. 지금 전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언제나 대변혁의 과정에 기회가 있다. 뒤늦게 산업사회로 진입하여 갖은 고생과 수모를 당해 왔지만, 이를 일시에 뒤엎고 응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함께 맞이하는 기회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민족은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민족적 특성이 있기에 기회는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술과 에너지의 가치가 높았던 반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또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감성적 가치가 존중받게 되며, 합리적이고 섬세한 일 처리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지식을 사랑하고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던 민족이다. 정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은 문자다. 우리는 우리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민족이다. 우리의 문자인 한글은 24자의 간결한 자모로 구성되지만, 여섯 가지 자모의 구성방법과 이홉 가지의 형태적 구조를 조합하여 수십만 가지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글자다. 세계 어느 민족이 자신들의 문자를 창제해 냈으며,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가?또한 우리 민족은 일찍이 인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국가 보위와 민족의 안위를 염원하는 팔만대장경이란 방대한 정보를 남겼고,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날날이 시계열적으로 정보화한 조선황조실록이 있다. 이렇듯 풍부한 정보문화적 유산을 가진 나라는 또 몇이나 되겠는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감성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민족은 감성이 매우 풍부한 민족이다. 감성이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하는 느낌을 조합하는 생각이며 그의 표현이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情과 緣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오히려 단점이 되기조차 한다. 올바른 인간관계보다 더한 감성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뿐만 아니라 색깔, 맛, 소리, 냄새, 촉각과 같은 느낌

을 나타내는 말을 알아보자. 시각적 감성 표현인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을 찾아보았다. 빨갳다, 새빨갳다, 붉다, 시뻘겋다, 빨그스레하다,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름하다, 불그죽죽하다, 불그데데하다……. 미각적 감성 표현인 맛을 나타내는 말들을 살펴보았다. 달다, 달콤하다, 달착지근하다, 달콤쌉쌀하다, 달콤새콤하다……. 은쟁반에 옥구슬 소리, 고소하다, 구수하다, 간질간질, 근질근질……. 이렇듯 풍부한 감성표현을 언어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또한 우리는 합리적이고 섬세한 민족이었다. 예절과 법도의 합리성을 보라. 언어 표현의 합리성과 섬세함은 또 어떤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겨레 만큼 합리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던 민족은 없다고 본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현재의 근로기준보다 더 합리적인 산전산후 휴가제도와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시골에 남아 있는 창문 격자의 빈틈없는 짜맞춤. 옛 어머니들이 만들었던 조각보와 청자나 백자의 아름다움과 섬세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농공상의 이념이 너무 강하여 애초부터 산업사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민족이었던 것 같다.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공업과 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던 민족이고, 아직도 이러한 사상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산업사회에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산업사회에 알맞은 가치관과 일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제3의 물결인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사랑하던 우리의 독특한 민족성과, 개개인의 우수한 두뇌와, 높은 교육수준과, 이웃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참된 인간성과, 온갖 국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은근과 끈기와, 어느 민족보다 발달한 감성을 개발하여 세계를 앞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사회가 끝나고 정보화 사회로 전이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외세로 인한 고난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훌륭한 정보문화적 민족성을 다시 일깨운다면 우리는 세계를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 전이되는 이 시점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라고 믿는다. 이러한 ‘하늘이 내린 기회’를 놓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산업사회에서는 몸을 던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따라갈 수 있었지만, 지식과 정보와 감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절대 몸만으로는 안 된다. 물리적인 힘만으로 생각을 바꾸고 해동을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지름길은 없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지름길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감성, 지식과 정보를 중히 여기고 합리적이고 섬세하던 민족의 특성에서 찾아 낼 수 있을 듯하다. 알파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적인 발상이라 탓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피하며,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이다.

선진 제국들이 해 왔던 방법을 단순히 추종만 할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의 특성과 장점을 복원하여, 바로 그들 때문에 왜곡되었던 가치관을 바로 잡고, 그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잠시 내쳐두었던 정신적 가치를 다시 찾아 내어 정보화에 접목하자. 그 길만이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고대에는 대륙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고, 근대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으며, 현대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다음에는 어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통신망 속의 세계, 즉 가상세계(Cyber Space)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늘이 내린 기회(天賜之機會)를 살린 우리나라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